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45  
<https://doi.org/10.29212/mh.2019.11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간부구성

김선호\*

1. 머리말
2.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 가. 민족보위국의 설립과 성격
  - 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내각
3.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
  - 가.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
  - 나.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성격
4.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과 간부충원
  - 가.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
  - 나. 정파연합체제와 간부충원
5. 맺음말

## 1. 머리말

북한의 국가기관 중에서 성(省)은 “국가 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

이다.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 관리업무에서 성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도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와 조선인민군 고급 장관의 임면(任免)은 내각의 권한이었다.<sup>1)</sup> 성은 성의 지도자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자체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성의 장관인 상(相)은 “단독적인 지도자”로서 성령(省令)의 심의, 사업의 집행·검열, 간부의 선택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sup>2)</sup> 즉 북한의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은 내각의 일부로서 인민군을 지도하고 관할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북한의 민족보위성은 1948년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설립되었다. 인민군은 정부 수립 이전까지 조선인민군총사령부(朝鮮人民軍總司令部)에서 지휘했으나,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족보위성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6·25전쟁 때까지 인민군을 육성하고 전쟁을 준비한 기관이 바로 민족보위성이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민족보위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는 인민군의 창설과정 속에서 민족보위성을 주목했기 때문에 주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편성, 간부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명하였다. 그 결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에서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으로 재편되는 과정, 제105탱크여단·제1중앙정치학교·육전대(陸戰隊) 등 민족보위성의 예하부대 관할계통, 민족보위성의 부서 편성, 총참모장·작전국장·간부부장을 비롯한 간부구성 등이 밝혀졌다.<sup>3)</sup>

1)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1950.7.20, 18~19; 23쪽.

2) 김택영,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민주조선사, 1949.9, 83~85쪽.

3) 민족보위성은 주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73~699쪽;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44~178쪽;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8, 33~62쪽;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에 대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조직체계·간부구성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적지 않으며, 민족보위성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민족보위성의 전신인 민족보위국(民族保衛局)의 존재와 설립과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민족보위성의 부처와 간부도 현재까지 9~10개 부처와 15~17명의 간부 이름만 알려져 있다. 또한 간부들의 직책도 선행연구마다 이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황호림(黃虎林)이 민족보위성 부총참모장이라는 견해와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이라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sup>4)</sup>

이와 함께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사실이 적지 않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김일성(金日成) 등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출신이 창군을 주도했으며, 여기에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출신이 참여하는 형태로 창군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sup>5)</sup> 다만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해서는 항일연군의 독점적인 군권 장악을 강조하는 견해와,<sup>6)</sup>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의용군 출신의 군권 진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절반이 넘는 간부의 이름·경력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정치세력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토대가 미약하다. 또한 각 정치세력의 권력투쟁과 군대의 주도권 장악문제에 집중할 경우, 각 정치세력이 군대 내부에서 형성하고 있던 역할분담과 역학관계를 포착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63~8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군사편찬연구소, 2004, 297~303쪽;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273~298쪽.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7쪽;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5) 김광운, 앞의 논문, 3~53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250~270쪽; 김광수, 앞의 책, 63~78쪽; 한용원, 앞의 책, 273~298쪽.  
6) 김광운, 앞의 논문, 52~53쪽.  
7) 서동만, 앞의 책, 259~270쪽.

하기 어렵다. 가령, 인민군이 ‘김일성 빨찌산부대의 산아(産兒)’로 규정된 것<sup>8)</sup>은 다른 정치세력이 군권투쟁에서 밀려났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 정치세력이 군대의 권한을 분점한 상태에서 내부 단결과 무력통일에 필요한 창군이념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군이 창설된 지 2년여 만에 현대적 공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육성된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갈등과 충돌보다 권한의 분담과 분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정치세력이 군대에서 맡은 역할은 개전 당시 인민군의 정치적·군사적 정체성을 해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보위성의 설립 과정과 조직·간부구성을 자료에 입각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인민군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 그들의 정치적 경력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정부수립과정 속에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과 간부층원이 북한의 군대와 정치체제 안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 2. 민족보위성의 설립과정

### 가. 민족보위국의 설립과 성격

북한의 군사지휘기관은 1946년부터 여러 차례 조직이 변화하였다.

8) 김웅,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의 견고한 성벽이다」,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1950년 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29쪽, NARA, RG 242, SA 2009, Box 3, Item 232. 김웅(金雄)은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 출신이다.

북한지역에는 1946년 8월 15일에 최초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가 창설되었으며, 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 인민집단군총사령부(北朝鮮人民集團軍總司令部)로 개편되었다. 집단군 총사령부는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sup>9)</sup> 1948년 9월 9일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내각에 민족보위성이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민족보위성에서 인민군을 총괄적으로 관할하였다. 그런데 민족보위성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모체가 된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은 1948년 2월에 신설된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2월 4일에 제58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민족보위국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강토와 우리 인민의 자유를 보위하는 역사적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족보위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2월 5일에 열린 제21차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金策)이 민족보위국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부위원장과 민족보위국장을 겸임하도록 조치되었다.<sup>10)</sup>

민족보위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군사담당부서로 설치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이 별도로 임명되었던 것에 비해,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장은 부위원장 김책이 겸임하였다. 민족보위국의 설립 사실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도 포착되었다. 주한미군이 청취한 평양라디오방송에 따르면,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崔庸健)은 2월 8일에 조선인민군 창설식의 연설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민족

9)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과 변화과정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 역사문제연구소, 2017.10; 김선호, 「북한의 통일전선 변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정신문화연구』 4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12.

10) 조선중앙통신사 편, 『해방후 10년일지(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29쪽;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會議 會議錄』, 朝鮮人民出版社, 1948, 159~168쪽.

보위국(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김책(Kim, Tchaik)이 민족보위국장이라고 공개하였다. 주한미군은 민족보위국이 군사담당부서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sup>11)</sup>

민족보위국의 설립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모스크바지도부-소련군 사령부와 상호 협의한 결과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에 개최한 회의에서 1948년 2월에 북조선인민회의를 소집해 임시헌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에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Т. Ф. Штыков)에게 북조선인민회의 산하에 “민족보위국”을 설립하는 문제와 인민회의 폐막일에 인민군의 열병식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모스크바지도부에 허가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슈티코프는 북한의 요청을 즉시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전달하였다.<sup>12)</sup>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슈티코프의 보고를 검토한 뒤, 1948년 1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설치하며, 인민회의 마지막 날 평양시에서 1개 사단 및 군관학교의 참가 하에 군중집회와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거행하도록 허가하였다.<sup>13)</sup> 2월 2일, 소련군 제25군사령부 군사위원 레베제프(Н. Г. Лебедев) 소장은 제25군사령부에 민족보위국 창설에 관한 법령내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소련공산당 정치국은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북조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동의하였고, 민족보위국의 창설을 허가하였다. 같은 날, 레베제프는 슈티코프와 툰킨으로부터 “민족보위국을 창설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 또한 슈티코프는 2월 5일에 레베제프에게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위조직과 제반조치를

11)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26(1948.2.6~2.1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84쪽.

12)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1948.1), ЦАМО(러시아연방국방성문서보관소),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1~2.

13)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228쪽.

강구할 목적에서 민족보위국의 창설을 법령으로 선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sup>14)</sup>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6~7일에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민족보위국의 설립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고, 김책을 정식으로 민족보위국장에 임명하였다.<sup>15)</sup> 즉 민족보위국은 1948년 2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모스크바지도부의 최종승인에 따라 조직되었다.

원래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는 인민군총사령부였다. 그렇다면 민족보위국이 신설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인 민족보위국과 군사지휘기관인 인민군총사령부의 상호 관계는 어떠했을까?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총사령부와 종적이든 횡적이든, 어떤 지시사항이나 보고사항 등 상호연락관계가 전혀 없었다.<sup>16)</sup>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민족보위국을 행정적 통제부서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민족보위국은 인민군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정권기관의 군사담당부서가 아니었다. 민족보위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인민군은 인민군총사령부가 관할했고 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았다. 현재까지 민족보위국의 간부부서·활동내용은 북한의 내부분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북조선로동당과 인민군의 극비문서까지 발견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족보위국이 설립될 당시, 최용건·강건(姜健)·무정(武亭) 등 창군 사업을 주도해온 인물은 대부분 인민군총사령부에서 간부를 맡고 있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인민군 창설을 앞두고 긴급히 군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민족보위국은 하루 뒤에 정식으로 창설될 조선인민군과 관련된 행정부서로 조직되었고, 김책이 국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족보위국의 다른 간부와 실무부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14)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46~48쪽; 기광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대한반도 관련 ‘결정’과 북한정부의 성격 구상(1945-1948)」, 『동방학지』 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373쪽.

15) 제25군사령관 코로트코프,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관한 보고」(1948),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20~22.

16) 장준익, 앞의 책, 75~76쪽.

김책은 극소수의 전문인력만을 데리고 활동했던 것 같다. 그는 민족보위국에서 북한정부 수립 뒤에 창설할 군사담당부서를 조직하는 준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보위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해 군대를 관장하는 행정적 통제부서로 규정되었지만, 조직과 인원의 미비로 인해 정권기관에서 주로 민족보위성을 창설하는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보위국이 신설된 1948년 2월 7일부터 정부수립 직전인 9월 8일까지의 기간은 조선인민군총사령부가 인민군을 지휘하고 민족보위국이 행정적 통제기관의 창설을 준비하는 과도기였다.

#### 나.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내각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된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분단정부 수립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에 미국 국무장관 마셜(George Marshall)이 제출한 단독선거 실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자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은 3월 9일에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유엔소총회의 단독선거 결정을 반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비판했다. 이날 김일성은 북조선민전 회의에 참석해 유엔소총회의 결정이 한반도를 경제적·정치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sup>17)</sup>

단독선거가 가시화되자, 북조선로동당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첫째, 노동당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구식(金奎植) 등의 정치세력과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북조선민전은 3월 25일에 제26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는 4월 19일에 평양에서 개막하였고,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는 6월 29일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sup>18)</sup>

17) 金日成, 「1948년 3월 9일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진술한 연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93~110쪽.



둘째, 노동당은 북한지역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1948년 4월 28~29일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둘째 날인 4월 2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이 통과되었다.<sup>19)</sup>

그런데 북한의 정치세력이 단독정부의 수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1948년 2월이다.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6~7일에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3월 중순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조선의 임시헌법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sup>20)</sup> 이들은 2월 6~7일에 단독정부의 헌법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2월 8일에 한반도의 유일군(唯一軍)으로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이들이 인민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한 이유는 단독정부, 즉 자체적으로 천명한 한반도 차원의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무력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3월부터 남북협상을 추진하였고 4월부터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착수하면서 미국정부와 소련정부에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철수요청은 4월 30일자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회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지도자협의회는 양군의 동시 철수가 “우리 조국에 조성된 현하 정세 하에서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단독정부 수립계획은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 →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조선입법

18)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9, 734; 738; 742~743; 758쪽. 『북한관계사료집』은 다음부터 반복될 경우에 권수만 표기함.

19) 북한의 헌법 제정과정과 그 성격은 다음 연구에 상세히 해명되어 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614~639쪽;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472~485쪽.

20) 제25군 정치담당부사령관 레베제프, 「북조선인민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 (1948.2.9),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 19.

기관선거 실시 → 헌법 제정 → 단독정부 수립'이었다.<sup>21)</sup>

1948년 2월에 시작된 단독정부 수립과정은 인민군이 육성되고 소련군이 철수를 개시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7월 9~10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5일에 북한의 전체지역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에 공식적으로 헌법을 채택하였다.<sup>22)</sup>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9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권과 권한을 최고인민회의에 이양하였다.<sup>23)</sup>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인민공화국의 국가형태는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통일전선정권으로 규정되었다. 즉, 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련립내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정부는 한 계급의 리해나 한 당의 리해를 대표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조선인민의 각계각층과 각당각파들의 대표들로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sup>24)</sup>

북조선로동당은 북한정부를 연립정권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본질은 정부 성원(成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9월 9일에 정부 성원을 발표하였다. 북한정부는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외무상 겸임)-홍명희-김책(산업상 겸임),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민족보위상 최용건, 국가검열상 김원봉,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상업상 장시우, 교통상 주녕하, 재정상 최창익,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리승엽, 문화선전상 허정숙, 로동상

21)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권, 741~743쪽.

22)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권, 760; 769~770; 773~774쪽.

23) 金日成, 「정권위양에 관한 성명-1948년 9월 8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앞의 책, 256쪽.

24) 許가이, 「北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第3次會議에서 陳述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選舉總和와 黨團體들의 當面課業에 對한 報告」,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4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 308쪽.

허성택, 보건상 리병남, 도시경영상 리용, 무임소상 리극로로 구성되었다.<sup>25)</sup>

북한정부의 성원 20명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정부 성원을 당별로 분류해보면, 노동당원은 김일성, 김책, 정준택, 박일우, 장시우, 주녕하, 최창익, 허정숙 등 8명이다. 민주당원은 최용건, 청우당원은 김정주가 유일했다. 남로당원은 부수상 박헌영, 농림상 박문규, 사법상 리승엽, 로동상 허성택, 보건성 리병남 등 5명이었다. 그 외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구성했던 우당(友黨) 출신은 홍명희(민주독립당), 김원봉(인민공화당), 백남운(근로인민당), 리용(신진당), 리극로(건민회) 등 5명이다. 북한정부는 남한에서 월북한 정치인들과 북한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연립정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당을 고려하면 북한정부의 최대 당파는 북조선로동당이었으며, 초대 내각은 노동당 우위의 정권이였다.<sup>26)</sup>

북한정부는 정부수립 직후에 정강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10일에 발표한 정강의 첫 번째로, 통일국가의 수립, “국토의 완정(完整),”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일성은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8대 대책 중 하나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sup>27)</sup> 즉, 북한정부는 정강을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민군을 강화하고, 인민군의 무력에 근거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정부의 국가적 성격은 인민민주주의국가로 규정되었다.<sup>28)</sup> 인

25) 김광운, 앞의 책, 669~671쪽; 서동만, 앞의 책, 226쪽; 기광서, 앞의 책, 516~518쪽.

26) 초대 내각의 성격은 다음 연구에 상세히 해명되어 있다. 서동만, 앞의 책, 225~228쪽; 기광서, 앞의 책, 517~521쪽.

27) 金日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발표-1948년 9월 10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앞의 책, 257~264쪽.

28) ‘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형태를 뜻하는 용어다. 그·아그마나베로브, 「인민민주주의 체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민주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내에서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능은 국가기관의 경제적·조직적·문화교양적 수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독립·자주권·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sup>29)</sup> 인민민주주의국가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사회주의의 토대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정부가 정부수립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국가로서 군대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sup>30)</sup>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은 정부가 수립된 당일인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으로 개편되었다.<sup>31)</sup> 민족보위성은 인민군총사령부와 달리, 내각에 소속된 군대에 대한 행정적 통제부서였다. 즉, 민족보위성은 내각의 집행기관이다. 내각에는 12개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중 하나로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와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권한이 부여되었다. 민족보위성은 “내각이 처리할 문제 가운데서 민족보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집행기관”이었다.<sup>32)</sup>

---

법에 대한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9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6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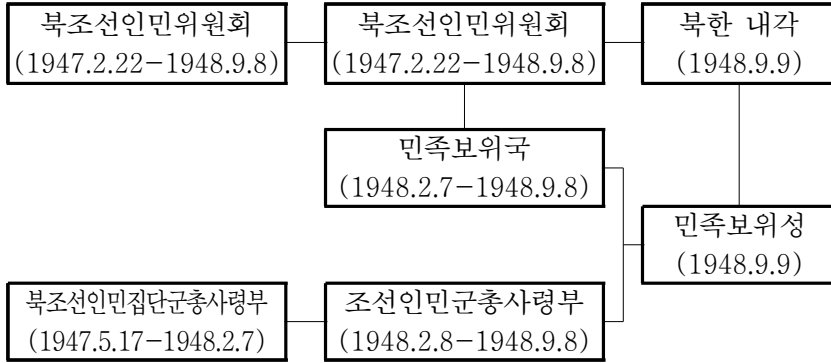
29) 브스마니콥스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 제22호, 로동당출판사, 1949.11.30, 66~67쪽.

30)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도입과정·성격·변화과정 등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최근의 주요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서동만, 앞의 책, 139~279쪽;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14, 31~112쪽; 한모니카,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8, 110~215쪽;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24~64쪽; 기광서, 앞의 책, 219~244쪽.

31)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32)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37~42쪽.

<도표 1> 군사지휘기관의 변화과정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구가 철거되고 소련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48년 9월 15일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25군사령부의 민정청 요원 80명과 위수사령부 관련 인원 1,154명은 1948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결정되었다.<sup>33)</sup> 소련군은 1948년 12월 16일자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슈티코프가 1949년 1월 12일에 “조선주차 소련특명전권대사”로 북한에 부임하였다. 북한정부는 슈티코프 대사가 부임하자, 이례적으로 1949년 3월에 노동성 기관잡지 『로동』 창간호를 통해 「위대한 쏘베트동맹 특명정권대사 쓰띠꼬브씨를 열렬히 환영한다」 라는 논설을 게재하였다.<sup>34)</sup>

북한에서 소련군의 통치기구가 철거된 것은 북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소련군 통치기구는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사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지도부는 통치기구를 철거시키고, 대신 슈티코프를 북한주재 소련대사로 임명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결국 북한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 통치기구가 철거

33) 기광서, 앞의 논문(2004), 231쪽.

34) 勞動省, 『로동』 제1호, 勞動省, 1949.3.15, 44~49쪽.

되면서, 인민군에 대한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북한 정부의 장악력은 강화되었다.

민족보위성이 창설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인민군을 지휘해온 인민군총사령부가 해소되어 민족보위성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민족보위성 창설 이전까지 인민군은 정권기관인 민족보위국이 아니라 정권기관의 외부에 있던 인민군총사령부가 지휘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의 군사담당부서로 민족보위성이 창설되자, 인민군총사령부는 내각에 흡수되었다. 또한 민족보위성 고급장관의 임면권도 내각이 보유하였다. 따라서 인민군은 민족보위성이 창설된 이후부터 완전히 내각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 3.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

#### 가. 민족보위성의 조직과 간부

인민군총사령부가 민족보위성에 흡수되면서, 총사령부의 간부들은 대부분 민족보위성의 간부로 다시 임명되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은 중앙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총사령부와 달리 총참모부 외에도 다양한 행정부서가 새로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로 새로운 간부들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보면,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족보위상(民族保衛相)은 인민군총사령관인 최용건이 맡았다. 민족보위성 부상(副相) 겸 문화훈련국장은 김일(金一), 문화훈련국 부국장은 김일(金日), 총참모장은 강건, 부총참모장은 최인(崔仁), 부상 겸 포병지휘국장은 무정, 포병지휘국 부국장은 김봉률(金鳳律), 전투훈련국장은 김웅(金雄), 후방국장은 최홍극(崔弘極), 작전국장은

유성철(俞成哲, 전임 황호림),<sup>35)</sup> 경찰국장은 최원(崔遠), 통신국장은 박영순(朴英順), 공병국장은 박길남(朴吉南), 간부국장은 리림(李林), 군의국장은 리동화(李東華), 전투경험연구부장은 류신(柳新), 정치보위부장은 석산(石山),<sup>36)</sup> 정치보위부 부부장은 박광선(朴光善), 민족보위성 총고문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소장이 맡았다.<sup>37)</sup> 민족보위성 통신부장은 박명수였다.<sup>38)</sup> 포병지휘국의 제1부국장은 김봉룡이었고, 제2부국장은 서용선(徐龍先)이었다.<sup>39)</sup> 간부국의 정확한 부서명칭은 “간부처”이며, 처장은 리림이 맞다.<sup>40)</sup>

1950년 3월 당시, 포병지휘국 참모장은 전학준(全學俊), 통신국장은 리종인(李宗仁), 작전국장은 유성철, 작전국 부국장은 윤상렬이 맡았다.<sup>41)</sup> 제1대 작전국 부국장은 고려인 김원길이다.<sup>42)</sup> 민족보위성에는 1949년 8월 20일에 새로운 병종지휘부가 설치되었다. 이날 북한정부는 인민군 해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였고, 민족보위성 안에 해군지휘부로 “해군훈련국”을 신설하였다. 해군훈련국장은 한

35) 주영복은 작전국장에 金光俠 소장이 임명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1990, 126쪽.

36) 주영복은 정치보위부장에 金波 총좌가 임명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주영복, 앞의 책, 126쪽.

37) 장준익, 앞의 책, 90~91쪽; 주영복, 앞의 책, 126쪽.

3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나남, 1996, 724쪽. 제2사단 문화부사단장 최복철의 경력에 입당 보증인이 “보위성 통신부장 박명수”로 기록되어 있다.

39) 朝鮮人民軍 第531軍部隊 第1副部長 金鳳律, 「指令-砲兵戰鬥訓練綱領改正에 關하여」(1950.1.30)·朝鮮人民軍 第531軍部隊 部長 武亭, 「指令-도라무容器 및 其他容器 還納에 關하여」(1950.3.13), 砲兵參謀部, 『保衛省接受文件綴』, 民族保衛省 砲兵指揮局, 1950.6.16, NARA, RG 242, SA 2013, Box 1, Item 116.

40)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 「각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 수요인원 보고에 관하여」(1950.5.11),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민족보위성, 1950.6,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이하 출처 생략).

41) 유성철, 「피바다의 비화」,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519~520쪽. 포병지휘국 참모장은 정학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이름은 전학준이다. 그는 고려인이며, 김일성이 활동한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 출신이다.

42) 장학봉 외, 앞의 책, 95쪽.

일무(韓一武), 참모장은 김원무(金元武)가 맡았다.<sup>43)</sup>

한편 육군정보국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를 정리하였다. 이 정보에 따르면, 민족보위성은 문화훈련국, 포병지휘국, 해군국, 전투훈련국, 조직보충국, 후방국, 군의국, 간부국, 운수국, 병기국, 보도부(報導部)로 구성되었다.<sup>44)</sup> 이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된 부처는 조직보충국, 운수국, 병기국, 보도부다. 또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는 규정부(規程部)가 조직되어 각 국의 군사규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토대로 인민군의 군사규정과 군사교재를 제작했다.<sup>45)</sup> 이상에서 확인한 민족보위성의 조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보위성은 총참모부, 6개 국, 1개 처, 1개 부, 2개 소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총참모부, 포병훈련국, 문화훈련국, 정치보위부, 군사최고검찰소, 군사최고재판소는 부서의 단위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원래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서들이다. 민족보위성의 총참모부는 9개 국과 2개 부로 구성되었는데, 작전국·정찰국·통신국·공병국·후방국도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서들이다.<sup>46)</sup> 이상의 부서체계를 통해 민족보위성이 인민군총사령부를 완전히 흡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보위성의 해군훈련국과 포병지휘국은 인민군에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다른 부서와 달리, 해군과 포병의 병종지휘부였다.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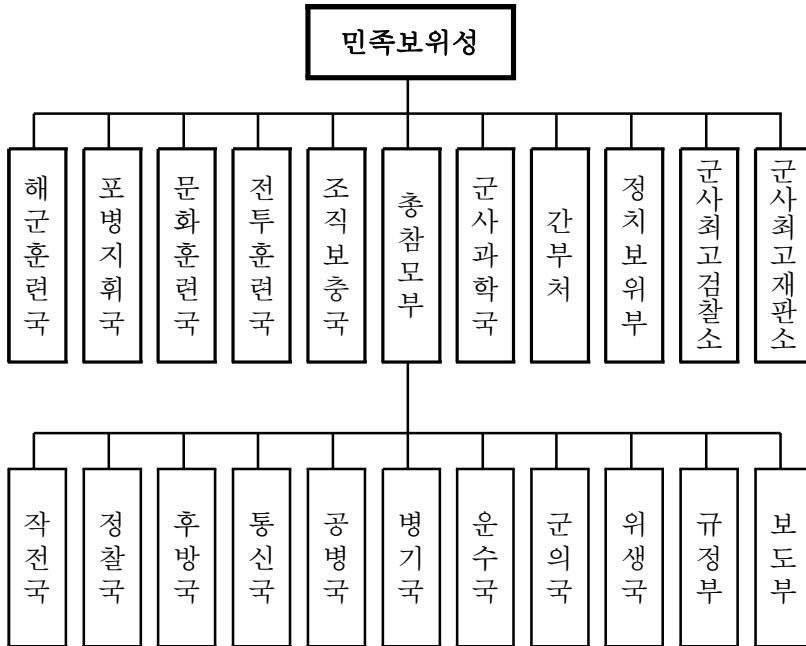
44) 그러나 이 정보도 틀린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육군정보국은 총참모부에 속하는 작전국, 정찰국, 통신부, 공병부를 모두 전투훈련국의 산하부서로 분류하였고, 군의국의 산하부서인 수의부를 후방국의 산하부서로 분류하였다.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육군본부, 1952, 105쪽.

45) 民族保衛省總參謀部, 『鬪爭手帖』, 民族保衛省軍事出版部, 1949.2.

46)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344~346쪽.



<도표 2> 민족보위성의 조직



민족보위성의 간부 중 일부 인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먼저 정치보위부장에 대해, 장준익·최태환은 석산(石山), 주영복은 김파라고 서술하고 있다. 석산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1945년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정식대표로 참여<sup>47)</sup>한 이후, 개전 전까지 행적을 알 수 없다.<sup>48)</sup> 김파는 내무성이 창설되자 내무성 정치보위국 제1처장에 임명되었으므로 정치보위부장이 아니다.<sup>49)</sup> 최태환은 1949년 7월부터 민족보위성 정치보위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의 증언에 따라 정치보위부장을 석산으로 보았다. 정치보위부 부부장은 최용건의 연락병 출신인 박광선인데, 그는 1936년 말까지 북

47) 김광운, 앞의 책, 365쪽.

48) 석산은 개전 직후에 인민군 전선사령부 안전국장장으로 임명되었다.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自由社, 1982, 181쪽.

49) 육군정보국, 앞의 책, 252쪽.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1937년부터 1940년 봄까지 모스크바의 “국제당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유학했다.<sup>50)</sup> 그는 소련의 정치사상과 군사교리를 충실히 학습한 인물이다.

다음으로 작전국장에 대해, 주영복은 김광협(金光俠), 장준익은 1대 황호림, 2대 유성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제1대 작전국장은 황호림 대좌가 맞다. 그는 작전국장에 임명되었다가 총참모장 강건과 충돌해 해임되었다. 그 후 황호림은 ‘불량분자’로 분류되어 소련 끌호즈로 추방되었다. 유성철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sup>51)</sup> 군사 부교장을 맡다가 1949년 9월에 2대 작전국장으로 부임하였다.<sup>52)</sup> 문화훈련국 간부부장은 항일연군 출신 안영(安英)이 맡았다.<sup>53)</sup> 정찰국 부국장은 고려인 김창국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에는 군사과학국이 조직되었는데, 국장은 알 수 없고, 부국장은 고려인 김철운이었다. 문화훈련국 군사번역부 부장은 고려인 림용검이었다.<sup>54)</sup>

또한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과 관련해, 1950년 2월 23일 당시 인민군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려인 명단이 있다. 그들은 “민족보위성 부상(해군훈련국장) 한일무, 포병사령부 참모장(포병지휘국 부국장) 김봉률, 작전국장 유성철, 후방국장 최홍극(최 아나톨리 알렉산드르), 후방병참부 부부장(후방국 부국장) 리승권, 통신연대장(통신국장) 리종인, 병기국장(포병지휘국 제2부국장) 서용선, 위생국장 김송

50) 최대환박해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79; 96쪽; 박광선, 『소부대활동의 나날에』, 금성청년출판사, 1991, 14쪽.

51) 북한에는 해방 직후에 2개의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6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각 병종의 초급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다. 평양학원은 1946년 1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고급 정치간부-군사간부를 양성하는 군관학교다. 두 학교의 조직과 정치세력 분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軍史』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2) 한국일보 편,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1991, 72쪽; 주영복, 『망향5 : 중립국행자원한 반공포로의 수기』, 『동아일보』, 1962.7.7.

53) 육군정보국, 앞의 책, 261쪽.

54) 장학봉 외, 앞의 책, 131; 140; 353쪽.

남(김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공병대장(공병국장) 박길남, 교육부 부부장(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 천률(천 유리 알렉산드로비치), 해군 교육부장(해군훈련국 문화부장) 주청준, 군 군율과장(규정부장) 리허구, 군 총검사(군사최고검찰소장) 김학인, 군 총검열관 허학철 등이다.<sup>55)</sup> 김학인(金學仁)은 민족보위성 최고검찰소장이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 내무성 검찰국장을 맡았다.<sup>56)</sup> 인민군총사령부의 최고검찰소장은 한철이었다.<sup>57)</sup> 그가 다른 직책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민족보위성 군사최고검찰소장을 한철로 추정하겠다.

인민군총사령부 직속 경위대대는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민족보위성 직속 경위연대’로 증편되었다. 1948년 11월 7일 당시 경위연대장은 항일연군 출신 강상호였다.<sup>58)</sup> 1948년 11월 17일부터 1949년 8월 12일까지 “보위성 직속 경비련대” 연대장은 리동호(李東浩)였다. 직속 경위연대의 단대호(單隊號)는 제571군부대였다.<sup>59)</sup> 리동호는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제3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sup>60)</sup> 문화훈련국 구락부장 겸 인민군협주단장은 의용군 출신

55)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87쪽;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선인, 2010, 448~449쪽. 둘 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필자가 두 글에 서술된 인명과 직책명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괄호 안이 확인된 직책명이다. 민족보위성 규정부장은 두 글에 각각 리허구와 리허규로 서술되어 있는데, 다음 책에서 인명을 확인하였다. 김국후, 『평양의 까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2013, 294쪽.

56)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동지 앞」(1948.10.2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자료집』 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430쪽.

57) G-2, USAFIK, *G-2 Weekly Summary*, No.138(1948.4.30.~5.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348쪽.

58)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간부리력서』, 민족보위성 간부처, 1949.1.8,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3.

59)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신영일은 평양학원 3기생으로, 1947년 12월부터 1948년 9월까지 “총사령부직속경위대대”에서 문화공작원으로 근무했고, 1948년 11월 17일부터 “보위성직속경비련대”에서 민청지도원으로 근무했다.

60) 楊昭全李輔溫, 『朝鮮義勇軍抗日戰史』, 高句麗, 1995, 46쪽; 염인호, 『조선의

정률성(鄭律成)이 맡았다. 그는 대대부 시기부터 구락부장 겸 협주단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sup>61)</sup>

이상에서 확인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sup>62)</sup>

단위	직책	간부	단위	직책	간부
민족보위성	민족보위상	최용건(항)	후방국	후방국장	최홍국(고)→정목(모름)
	총참모장	강건(항)		부국장	리승권(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최인(의)	작전국	작전국장	황호림(고)→유성철(고)
				부국장	김원길(고)→윤상렬(모름)
문화훈련국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항)	경찰국	경찰국장	최원(고)
	부국장	김일(金日)(고)		부국장	김창국(고)
	간부부장	안영(항)	통신국	통신국장	박영순(항)→리종인(고)
	선전선동부장	천률(고)		통신부장	박명수(모름)
	군사번역부장	림용검(고)		공병국	공병국장
구락부장	정률성(의)	병기국	병기국장	미상	
포병지휘국	포병지휘국장	무정(의)	운수국	운수국장	미상
	제1부국장	김봉률(고)	군의국	군의국장	리동화(고)
	제2부국장	서용선(고)	위생국	위생국장	김송남(고)
	참모장	전학준(고)	간부처	간부처장	리립(의)
해군훈련국	해군훈련국장	한일무(고)		정치부장	석산(항)
	참모장	김원무(고)		보위부	부부장
	문화부장	주청준(고)	규정부	규정부장	리허구(고)
전투훈련국	전투훈련국장	김웅(의)		군사최고검찰소	최고검찰소장
	전투경험연구부장	류신(의)	기타		총검열관
조직보충국	조직보충국장	미상		경위연대장	강상호(항)→리동호(의)
군사과학국	부국장	김철운(고)			

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170쪽.

61) 정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그의 삶』, 형상사, 1992, 227쪽.

62) 괄호 안은 간부들의 경력을 확인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정치세력을 표시한 것이다. (고)는 고려인, (의)는 조선의용군 출신, (항)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모름)은 경력 모름을 뜻한다.

현재까지 이름과 직책을 알 수 있는 민족보위성의 간부는 총 42명이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특징은 인민군총사령부의 간부가 민족보위성으로 그대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은 민족보위상, 총참모장 강건은 총참모장, 문화부사령관 김일(金一)은 부상 겸 문화훈련국장, 포병부사령관 무정은 부상 겸 포병지휘국장에 임명되었다. 총사령부에 있던 각 부서장도 그대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직책 명칭만 변경되었다. 이들은 최홍극(후방부사령관→후방국장), 김일(金日, 문화부장→문화훈련국 부국장), 박영순(통신부장→통신국장), 박길남(공병부장→공병국장), 리동화(군의과장→군의국장), 정률성(구락부장 동일)이다. 민족보위성에서는 후방부사령관이 후방국장으로 강등되었다.

신설된 부서장은 내부승진이나 외부영입으로 충원되었다. 전투훈련국장은 제1사단장 김웅이 승진해 임명되었고, 전투경험연구부장은 제2사단 참모장 류신이 승진해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성에 처음 설치된 해군훈련국의 경우, 국장은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위원장 한일무가 영입되었고, 참모장은 김원무가 영입되었다.

#### 나.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성격

민족보위성의 직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장관인 민족보위상과 함께 차관에 해당하는 3명의 부상(副相)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부상은 문화부상 김일(金一), 포병부상 무정, 해군부상 한일무였다. 이 직책은 인민군총사령부에 있던 “부사령관”을 정부수립 이후에 내각의 차관명칭으로 개칭한 것이다. 또한 인민군총사령부에는 “문화부사령관”만 존재했지만, 민족보위성에는 부사령관에 해당하는 부상이 3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달리 국군 국방부에는 국방부 장관 밑에 1명의 국방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였다. 민족보위성의 문화부상과 포병부상은 국방부에는 없는 직책이다. 국방부에는 해군부상보다 낮은

직급으로 해군참모총장이 있었다. 또한 국방부 본부에도 문화훈련국에 해당하는 정훈국이 조직되었지만, 정훈국장은 국방부차관의 지휘를 받는 부서장이었다.<sup>63)</sup> 부상의 특징을 보면, 북한지도부가 인민군의 정치사상사업과 포병·해군을 다른 병종보다 중요하게 인식해 차관급부서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인민군의 공군은 육군·해군과 달리 독립병종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의 직속 사단으로 존재했고, 포병처럼 독자적인 병종지휘부도 없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설립 이후부터 군사지휘기관의 간부를 연임시키는 간부정책을 지향해왔다. 이것은 특정 인물에게 해당부문을 책임지우는 간부책임제(幹部責任制)다. 노동당이 간부책임제를 지향한 이유는 창군사업의 연속성을 견지하고 지휘부 간부들의 업무능력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 중 일부 인물은 간부책임제에 따라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시기부터 해당부문을 육성해온 창군요원이었다. 이들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훈련국장 김일, 포병지휘국장 무정, 후방국장 최홍극, 간부처장 리림, 통신국장 박영순, 공병국장 박길남, 경찰국장 최원이다. 이들을 정치세력별로 분류하면,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총사령관과 정치사상부문·통신부문 책임자를 맡아왔고, 조선의용군 출신은 포병부문·간부부문 책임자를 맡아왔으며, 고려인(Корё Сарам)은 후방부문·공병부문·경찰부문 책임자를 맡아왔다. 이 같은 간부책임제에 따라 군대의 정치적·군사적 특징과 업무경험이 민족보위성에 계승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을 정치세력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간부는 총 38명이다. 항일연군 출신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총참모장 강건,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 문화훈련국 간부부장 안영, 1대 통신국장 박영순, 정치보위부장 석산, 정치보위부 부부장 박광선, 1대 경위연대장 강상호 등 8명이다. 의용군 출신

63)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18~121쪽.

은 부총참모장 최인, 포병지휘국장 무정, 전투훈련국장 김웅, 전투경험연구부장 류신, 간부처장 리림, 문화훈련국 구락부장 정률성, 2대 경위연대장 리동호 등 7명이다. 고려인은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金日),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군사번역부장 천률·림용검, 포병지휘국 부국장·참모장 김봉률·서용선·전학준, 해군훈련국 국장·참모장·문화부장 한일무·김원무·주청준, 군사과학국 부국장 김철운, 1대 후방국장 최홍국, 후방국 부국장 리승권, 1대·2대 작전국장 황호림·유성철, 1대 작전국 부국장 김원길, 경찰국장 최원, 경찰국 부국장 김창국, 2대 통신국장 리종인, 공병국장 박길남, 군의국장 리동화, 위생국장 김송남, 총검열관 허학철, 규정부장 리허구 등 23명이다. 민족보위성 간부 중 항일연군 출신은 21%, 의용군 출신은 18.5%, 고려인은 60.5%였다.

민족보위성의 의용군 출신은 최인을 제외하고 인민군 창설 이전부터 군사지휘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항일연군 출신은 석산과 박광선을 제외하고 인민군 창설 이전부터 군사지휘기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민족보위성의 의용군 출신과 항일연군 출신은 모두 해방 전에 군사간부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민족보위성의 고려인 23명 중 천률·림용검·한일무·김원무·주청준·김철운·리승권·김원길·김송남·서용선·허학철·리허구 등 12명은 민족보위성 설립 이전에 군사지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이 중에서 서용선(Ше, Ён-Сен)은 해방 이후에 소련에서 러시아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1948년 3월 2일에 처음 북한에 파견된 인물이다. 또한 소련 국방성 작전국 번역원 김철운과 태평양함대 육전대원 한일무<sup>64)</sup>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소련에서 민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소련군 경력이 없었다.<sup>65)</sup>

64) 장학봉 외, 앞의 책, 138~139; 724~725쪽.

65) 러시아 학자 송잔나는 러시아연방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수집해서 해방 이후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의 경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자신의 주(州)에서 민간전문가들이었고, 붉은 군대와 관련이 없으며, 북한에 군사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입학 이후 필요에 따라 장교의 직위에 임명되었다'고 분석하였다. Ж. Г. Сон,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НДР*

고려인들은 입북 직후에 대부분 군사지휘기관이 아니라 소련군의 민정부서와 위수사령부에 통역으로 배치되었고, 일부만 제25군사령부 정치부 제7국에 배치되었다.<sup>66)</sup> 그 후 북한의 창군사업에 간부가 부족하자,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1946~1947년에 군대의 교원과 통역원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 조선인민군 군적(軍籍)과 북한 공민권(公民權)을 취득한 인물들이다. 가령, 김철운은 1946년 말에 소련군 민정청에서 파견되어 정치학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민족보위성 군사과학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천률은 1946년 4월에 민정청에서 파견되어 인민군 제3사단 제1연대와 항공부대 교도대대 통역관으로 근무하다가 1949년 5월에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총검열관 허학철은 1948년 12월 20일까지 『조선인민군』 신문 출판사 번역원으로 근무하다가 소련군이 철수할 때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인민군 군적과 북한 공민권을 취득하였다.<sup>67)</sup>

고려인은 민족보위성 간부 중 60.5%를 차지했다. 이들이 민족보위성에 가장 많이 배치된 이유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이들의 점령 통치 보조업무가 종료되었고,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많은 신규간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은 이미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부터 건당·건군·건국사업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적과 소련공민권을 가지고 있던 고려인은 당시 당·정·권·기·관·군대에 즉시 충원될 수 있는 최대의 간부집단이었다. 또한 민족보위성에 새로 충원된 고려인들은 고학력자들이었다. 예컨대, 김원길은 카자흐스탄사범대학 역사학과, 김철운은 우즈베키스탄대학 법학과, 림용검은 우즈베키스탄 고등학교, 천률은 우즈베키스탄사범대

(1946-1948), Копë Саpам, 2016.1.13.

66) 제7국은 소련군 총정치국계통의 정치담당부서로,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사령부의 한글기관지 『조선신문』 발행 등 특수선전활동을 펼쳤다. 제7국에 배치된 대표적인 고려인은 강미하일(강용구) 소좌와 오기찬 대위다.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9, 71; 141쪽.

67) 장학봉 외, 앞의 책, 140; 655; 757쪽.



학 역사학과, 한일무는 우즈베키스탄공산대학, 허학철은 우즈베키스탄전문대 자동차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이 가운데 림용검(1941년 입당)과 천률(1944년 입당)은 소련공산당원이었다.<sup>68)</sup> 이들은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과 달리 소련의 혁명역사·법률·교육과학기술과 소련공산당의 조직·체제·노선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였고, 이 같은 소련의 경험을 인민군에 이식하였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해방 후에 자의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부여한 임무를 받고 북한에 ‘과건’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946년 10월 이후 북한에 파견된 고려인들은 소련 국가보안인민위원회(НКГБ)에서 엄격한 검열을 받은 인물들이며, 소련공산당의 정식당원과 후보당원이거나 콤소몰(Комсомол, 전연방레닌주의청년공산주의자동맹)의 맹원이었다. 특히 소련공산당은 파견대상자로 선발된 고려인 가운데,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파견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69)</sup>

그리고 소련군 철수 이후 북한에 남은 고려인 중에서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소련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잔류한 인물들이었다.<sup>70)</sup> 또한 민족보위성의 고려인 가운데 절반은 해방 전에 군사간부 경력이나 해방 후에 군사지휘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일부 인물은 소련군 철수시 처음으로 인민군 군적을 취득하였다. 소련군사령부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으로 진출된 고려인들은 1948년까

68)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65~74쪽.

69) 소련 국가보안인민위원회는 군사정보와 방첩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며, 독소전쟁 당시 소련군의 최고방첩국인 스페르쉬(СМЕРШ)의 전신이다. 소련공산당이 1946년 4월부터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검토한 고려인은 총 1,685명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파견된 인원은 500명 미만이다. Ж. Г. Сон, 앞의 논문.

70) 소련 민정청은 북한에 있던 고려인 23명에게 소련군 철수 이후 거취의사를 청취했다. 답변이 기록된 21명 가운데 당이 명령하거나 필요로 할 경우 잔류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조건부 잔류자(자녀문제 해결시 잔류)는 3명이었다. 이 가운데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도 자발적으로 잔류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당이 명령한다면 잔류하겠다고 답변했다. 레베제프, 「1948년 9월 13일자 일기」,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지 소련군의 계급과 소련 공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sup>71)</sup> 고려인은 민족보위성의 최대세력이었으나 군사경력과 군사경험이 가장 적었고, 소련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잔류해 간부로 임명된 인물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북·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인민군에서 정치·군사적 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 4.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과 간부층원

### 가. 민족보위성의 정치세력 분포

북한에서 활동한 여러 정치세력은 민족보위성에서 각각 특정한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인민군의 지휘권(총사령관·총참모장), 정치사상사업(문화훈련국장·문화훈련국 간부부장), 방첩부문, 통신부문을 장악했다. 의용군 출신은 포병부문 지휘권(포병지휘국장), 전투훈련부문, 전투경험연구부문, 군 전체의 인사권(간부처장)을 장악하였고, 참모부문 부책임자와 문화부문(구락부장)을 담당하였다. 고려인들은 해군사령부, 작전·후방·정찰·공병·군의부문 등 주로 전문기술병종을 장악하였고, 정치문화사업·포병부문·군사과학부문 부책임자와 선전선동·군사번역부문 책임자를 맡았다. 특히,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항일연군 출신, 인민군의 전투교육·훈련부문은 의용군 출신, 인민군의 해군·포병·공병은 고려인이 책임지고 육성하였다. 그 이유는 항일연군 출신이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독점하고 있었고, 의용군 출신이 가장 전투경험이 풍부했으며, 고려인이 소련군의 전문기술병종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보위성의 실권은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고,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71) 안드레이 란코프, 앞의 책, 142쪽.

군대의 총사령관·총참모장·정치사상부문 지휘관은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인민군총사령부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또한 대대부·집단군총사령부 총참모장이었던 안길(安吉)이 병사하자, 후임으로 항일연군 출신인 강건이 임명되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최용건·강건·김일을 정점으로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민족보위성의 간부들이 작성한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건은 노동당 당원용 기관잡지에 투고한 논설에서 인민군이 “김일성 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창건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sup>72)</sup> 이 ‘혁명전통’은 독립적 교과목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의 기관잡지에 게재될 만큼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는 항일연군 출신이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한 결과, 인민군의 정치사상적 정통성이 김일성부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내 정치세력의 분포와 인원·군사경력·전문기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들에게 다른 부문·병종의 지휘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인민군의 포병 부문·전투교육·전투훈련·간부부문은 의용군 출신들이 장악하였고, 인민군의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들이 장악하였다. 이상의 정치세력과 달리, 군사경력이 없는 국내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출신은 인민군에서 자리잡지 못했다. 따라서 인민군을 정치세력별로 분석해보면, 인민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들이 각각 전문적인 부문을 분점하고 있는 정파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를 좀 더 확인해보면, 정파연합적 성격은 더욱 확연해진다. 현재까지 인민군부대 간부의 해방 이전 경력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민족보위성에 소속되어 있는

72)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 1950년 2호, 로동신문사, 1950.1.31, 23쪽.

“문화간부”의 해방 이전 경력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12월 15일 당시 민족보위성에 있는 문화간부는 모두 1,881명이었다. 이들 중 442명은 해방 전에 “혁명군” 경력자(23.5%)였고, 169명은 일본군 출신(9%)이었다. 해방 전의 경력이 없는 간부는 1,270명으로 전체의 67.5%였다. 혁명군 경력자를 다시 구분해 보면, 422명이 “팔로군”출신, 5명이 “항일연군”출신, 9명이 “지하운동자”, 6명이 “기타”였다.<sup>73)</sup>

문화간부의 67.5%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은 해방 이후 창군과정에서 육성된 인물들이다. 해방 전에 ‘혁명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23.5%의 문화간부를 분석하면, 이 중에서 팔로군(八路軍) 출신이 95.5%(전체 문화간부의 2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방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을 뜻한다. 반면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5명, 지하운동 경력자는 9명에 불과했다. 의용군 출신은 여러 정치세력 중에서 문화간부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었다.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49년 12월 이후에도 조선의용군에서 기원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선인부대가 계속 입북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사상사업의 총책임자나 문화부사단장 등 고급간부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로 중급·하급 문화간부를 맡았기 때문에 창군이념 등 정치사상사업의 핵심을 주도할 수 없었다.

항일연군·의용군 출신과 함께 고려인도 문화간부로 임명되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1950년 2월 23일 당시, 인민군 문화간부로 근무하던 고려인은 문화훈련국 부국장 김일(金日), 문화훈련국 선전선동부장 천률, 해군훈련국 문화부장 주청준, 제1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태권, 제2사단 문화부사단장 김명석, 제3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학천, 제6사단 문화부사단장 한성천, 제105탱크여단 문화부여단장 안동수 등이 있었다.<sup>74)</sup> 고려인들은 민족보위성에서 문화훈련국 부국장·선전

73) 민족보위성 간부부 부장 안영, 『(극비)문화간부성원통계표』 (1949.12.15), 습격기연대 문화부, 『제미날제강-국내정세』, 습격기연대, 1950.4.3,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1.5.

74) 안승환, 앞의 논문, 387쪽; 박종효 편역, 앞의 책, 448~449쪽. 둘 다 동일한

선동부장, 해군사령부·보병사단·탱크여단의 문화부 책임자 등 주로 고급 문화간부를 맡고 있었다.

특히 고려인 김일(金日)은 소련 국적과 소련공산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문화훈련국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김일의 정체성은 북한보다 소련에 있었다. 그는 1948년 9월에 소련 민정청이 소련군 철수를 앞두고 국적의 이적(移籍) 여부를 물었을 때,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sup>75)</sup> 김일뿐만 아니라 민족보위성과 인민군에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북한정부 수립 이후에도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정부는 1950년 2월 23일자로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 고려인 174명에 대해 북한 국적 취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은 민족보위성 부상 한일무, 작전국장 유성철, 후방국장 최홍극, 제2사단장 리청송, 제1사단 문화부사단장 김태권, 해군군관학교 교장 김우현, 비행사단 문화부사단장 유성걸 등이다.<sup>76)</sup> 즉, 인민군의 고려인 간부들은 소련인과 소련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민군에 소련공산당·소련군의 조직·체계·노선을 이식하였다.

인민군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이었다. 그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문화부문 사령관을 맡아왔다. 그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대표해 인민군 내부에서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일은 이미 해방 전인 1937년 6월에 김일성과 함께 보천보전투에 참가한 이래, 동북항일연군 제2군에서 정치사상사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김일성이 1938년에 제2방면군 지휘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제8연대 정치위원으로서 김일성부대의 당사업·대중단체조

자료를 활용하였다. 필자가 두 글에 서술된 인명과 직책명을 비교해 확인하였다. 박종효의 번역본에는 문화훈련국 부국장이 “교육부 부부장”, 문화부사단장·문화부여단장이 “대중교화부 부부장” 등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75) 레베제프, 「1948년 9월 13일자 일기」,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76) 박종효 편역, 앞의 책, 447~453쪽.

직사업·선전선동사업을 책임졌다.<sup>77)</sup> 그는 해방 전부터 김일성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펼치면서 김일성의 노선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문화간부로 임명된 정치세력 가운데 95.5%는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 또한 문화훈련국의 실무책임자와 해군·보병사단·탱크여단의 문화부책임자는 모두 고려인이었다. 따라서 정치사상사업의 지휘권은 항일연군 출신이 가지고 있지만, 정치사상사업의 집행권은 고려인과 조선의용군 출신들이 분점하고 있었다. 또한 각 정치세력은 문화훈련국 내에서 정치사상사업의 방향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sup>78)</sup>

#### 나. 정파연합체제와 간부총원

민족보위성의 간부구성은 크게 분류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북조선로동당이나 내각의 간부구성과 달랐다는 점이다. 북조선로동당은 1948년 3월 27~30일까지 제2차 당대회를 개최해 당지도부를 전면 개편하였고, 이때 조직된 당지도부는 민족보위성 설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위원장은 김두봉(조선독립동맹), 부위원장은 김일성(항일연군)과 주녕하(국내)가 맡았다. 최고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는 김일성·김책(항일연군), 김두봉·최창익·박일우(독립동맹·의용군), 허가이(고려인), 주녕하(국내)로 구성되었다. 67명이 선출된 당중앙위원은 독립동맹·의용군 출신 18명(27%), 고려인 17명(25%), 국내공산주의자 13명(19.5%), 항일연군 출신 8명(12%), 모범노동자·농민 8명(12%), 테크노크라트 2명(3%), 기타 1명(1.5%)으로 구성되었다.<sup>79)</sup>

77) 김일은 1942년 당시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 시절에도 한반도 국경지대에 밀파되어 지방당단체 복구사업과 조국광복회 조직사업을 담당하였다. 립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175; 218; 291쪽.

78) 예를 들어, 해방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고려인과 다른 정치세력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최태환·박혜강, 앞의 책, 76~78쪽.

북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은 김두봉(金斗奉)이었으나, 당의 실질적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 노동당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김일성이 노동자농민의 대표정당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유일당 창당 이후 당의 노선으로 대중정당을 지향했고 통일전선을 추구해왔다. 당은 이 같은 노선에 따라 인텔리·소시민·자본가의 대표정당인 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 당수 출신인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당 지도부는 대중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통일전선이라는 당의 노선에 따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sup>80)</sup> 이와 함께 당내의 정치세력 분포도 민족보위성과 달랐다. 노동당 지도부의 간부구성을 살펴보면, 독립동맹·의용군 출신이 27%, 고려인이 25%, 국내공산주의자가 19.5%, 항일연군 출신이 12%였다.

북한체제의 정파연합적 성격은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조직위원회의 세력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은 1949년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조선로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출범하면서 남로당 출신이 대거 당중앙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노동당의 내부 권력구조는 남로당의 참여로 인해 정파연합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김일성이 당위원장에 선출되었지만, 정치위원회의 집단지도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창당 당시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비서직이 신설되었고, 제1비서에 고려인 허가이(許哥而), 제2비서에 남로당의 리승엽(李承燁), 제3비서에 남로당의 김삼룡(金三龍)이 선출되었다. 당위원장의 권한은 당무를 총괄하는 비서직이 신설됨으로써 분산되었으며, 당조직위원회도 기존 구성과 달리 정파별로 안배되었다.<sup>81)</sup>

79) 서동만, 앞의 책, 217~218쪽.

80) 김일성은 1949년 6월 30일에 북로당과 남로당이 합당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위원장은 박헌영(朴憲永)과 허가이가 맡았다. 김일성, 「남북조선로동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할데 대하여 남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연합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49.6.30), 『김일성 저작집』 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22쪽.

북조선로동당이 명목상 지도자로 김두봉을 내세웠음에 비해, 민족보위성의 최고지휘관은 항일연군 출신인 최용건이 맡았다. 그는 1945년 11월 19일에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장에 임명된 이후 군대의 최고지휘관 위치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 민족보위성도 노동당과 유사하게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정파연합체제였다. 그러나 민족보위성 간부는 노동당과 달리 고려인이 65%, 항일연군 출신이 19%, 의용군 출신이 16%였고, 국내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었다. 민족보위성에서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과 달리 민족보위성 간부의 19%를 차지하는 2대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군대의 핵심부문인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노동당과 달리 민족보위성 간부 중 16%에 불과했으며, 군대의 인사권과 포병·전투훈련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 고려인은 민족보위성의 최대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군대의 지휘권·인사권·정치사상사업 등 핵심부문의 책임자를 맡지 못했다.

항일연군 출신은 민족보위성에서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고려인은 군대의 기술부문과 전문부문을 담당하고 있었다. 의용군 출신은 군대의 포병부문과 인사부문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대에서 중급·하급 간부로 진출했다. 항일연군 출신의 최고지휘부정치사상부문 장악, 고려인의 전문기술부문 진출, 의용군 출신의 포병·인사부문과 중하급 간부 진출은 1946년 8월의 제1단계 창설과정부터 지속되어온 정치세력의 역할분담이다. 이 같은 역할분담은 민족보위성 시기에 이르러 확고히 정착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연군 출신이 최고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 부문을 장악하고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군대에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간부들의 임명계통이다. 194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족보위성에서는 인사이드가 심해졌

81) 서동만, 앞의 책, 228~232쪽.



고, 군사간부의 수요도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북조선로동당 간부국은 약 100여 명의 대좌, 200여 명의 중좌를 새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에 있던 조선인부대가 귀국했으며, 이에 따라 인민군 육군·해군·공군이 증편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민족보위성 인사이동의 특징은 임명계통이 동일 병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종을 넘나들었다는 점이다. 육군에서 해군으로, 포병에서 탱크병으로, 운수부대에서 자동차부대로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흐름이었다. 대표적으로 공병국 작전과장 양승환 중좌는 대좌로 승급해 해군 공병부장으로 전임되었고, 제1사단 공병장 박관철 중좌는 제105탱크여단 공병장으로 임명되었다.<sup>82)</sup>

더 나아가 간부들의 임명계통은 민족보위성 시기에 들어와 인민군과 내무성 간의 상호 이동을 넘어서 다른 정권기관·노동당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인민군총사령부에서도 노동당 간부가 영입되었지만, 이 같은 영입방식은 극히 일부였다. 민족보위성 시기에 노동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인민군 간부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해군부상 한일무다. 그는 1945년 8월 9일에 소련 태평양함대 육전대원으로 청진 전투에 참전하였다. 한일무는 1946년 6월까지 북조선분국 원산시당 선전선동부장과 당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49년 8월까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해방 이후 줄곧 노동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해군이 창설되자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sup>83)</sup> 정권기관 간부로 활동하다가 인민군 간부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해군사령부 군사교통부장 박삼철이다. 그는 교통성 산하 청진철도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군사령부에 배치되었다.<sup>84)</sup>

민족보위성의 간부 임명계통은 인민군총사령부 시기에 비해서 더

82) 주영복, 앞의 책, 165~166쪽.

83) 장학봉 외, 앞의 책, 723~726쪽.

84) 한일무, 「간부취천의뢰에 대하여」(1950.5.20),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욱 확대되었다. 인민군총사령부 시기, 간부의 임명계통은 인민군총사령부와 내무국을 서로 넘나들었다. 하지만 병종 간 임명계통은 보병부대 내부에서 병종 간에만 이루어졌다. 민족보위성의 간부 임명계통에서도 민족보위성 간부가 내무성 간부로 전임되었다. 그러나 병종 간 임명계통은 보병부대 내부를 넘어서 보병계통에서 해군계통, 포병계통에서 탱크병계통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정권기관·노동당의 간부로 활동해온 인물이 민족보위성 간부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서는 정권기관 간부를 군사간부로 배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sup>85)</sup> 이 전례는 민족보위성 시기에 출현하였다.

민족보위성 시기에 들어와 간부의 임명계통이 모든 병종으로 확대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인민군이 점차 일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족보위성은 기존에 인민군에서 활동해온 간부를 새로운 병종과 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인민군 전체에 창설경험과 운용방식을 전파하고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인민군의 전체 병종·부대는 창설경험·운용방식과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육성되었다.

민족보위성 간부구성의 세 번째 특징은 간부들의 충원경로다. 민족보위성은 부족한 간부를 자체적으로 충원한 것이 아니라 북조선로동당을 통해 충원하였다. 민족보위성에 필요한 간부는 주로 민족보위성 간부처장이 노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 충원하였다. 그러나 간혹 민족보위상이 직접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1950년 4월 10일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부장”에게 「자동차 기술간부 소환의뢰에 관하여」 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민족보위성에는 “포견인 자동차

85)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인 남일(南日)이다. 그는 입북 직후부터 북조선인시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 교육성 부상을 맡는 등 계속해서 교육부문에서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에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임명되었고, 휴전협정 당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수석대표를 맡았다. 김광운, 앞의 책, 684쪽.

및 트랙도루”를 관리하는 부서는 있었으나 기술간부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 최용건은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정치수준이 높고 사상의식이 견실한 자로서 로동당원인 자”를 소환해 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sup>86)</sup> 또한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은 1950년 5월 11일자로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6월말에 각 대학 및 전문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중 민족보위성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민족보위성이 요청한 졸업생은 총 550명이었다.<sup>87)</sup>

그런데 민족보위성은 군관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모집을 요청해 충원했다. 조선인민군 제2중앙정치학교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관할했다. 1950년 5월 25일경 문화훈련국은 내무성에 “조선인민군 제2정치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학생들은 제2정치학교 1년반에 소속될 예정이었다. 내무성은 민족보위성의 의뢰에 따라 1950년 5월 25일 「내성1처 제626호」와 6월 2일 「내성1처 제676호」를 하달해 군무자들의 응모를 받았다.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은 6월 11일에 인민군 제2정치학교 학생 선발자 110명의 명단을 중앙당 간부부장에게 발송했다.<sup>88)</sup>

민족보위성이 노동당을 통해 간부를 충원한 것은 북조선로동당이 도입한 소련식 당-국가체제 때문이다. 노동당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간부에 대한 당의 인사권을 확대하였다. 즉, 모든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당이 장악하는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9년에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해당기관 당원인 책임자와 간부취급 단임자 외에는 절대 비밀로 취급했다.

86) 민족보위성 최용건, 「自動車 技術幹部 召喚依賴에 關하여」(1950.4.10),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87) 민족보위성 간부처장 리림, 「각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생 수요인원 보고에 관하여」(1950.5.11),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88)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내성1처 제742호 : 인민군제2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 내무성, 1950.6.11,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7.

북조선로동당은 이 규정에서 당단체, 정권기관, 교육·문화보건기관, 경리기관·협동단체, 사회단체, 인민군대·경비대·보안대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중앙당과 지방당에서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sup>89)</sup>

이 규정이 채택된 이후, 당·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간부는 선출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노동당의 비준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었다. 인민군 간부 중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인사를 취급하는 간부는 사단·여단의 부부대장 이상, 사단·여단의 정치보위부장·문화부장·작전과장·정찰과장, 연대의 부연대장 이상, 해군사령부의 참모장·부사령관이다. 노동당은 인민군에서 부연대장급 이상의 군사지휘관과 사단·여단에서 방첩임무를 수행하는 정치보위부장을 특히 중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사단·여단의 간부 중 문화부장·작전과장·정찰과장을 중시했고, 인민군에 있는 상급 문화간부를 중시했다. 노동당이 인사권을 행사한 최하급 군사간부는 대대장과 문화부대대장이었다.<sup>90)</sup> 문화부대대장 아래의 군사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민족보위성에서 행사했다. 노동당은 문화부대대장 이상 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중앙조직위원회를 통해 북한지역 모든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고, 이를 통해 각 부문에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당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당시 중앙조직위원회는 조직부장 허가이를 필두로 고려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당내에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당시 내무성군대에는 당단체가 조직되었지만, 인민군에는 창설 당시부터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sup>91)</sup> 이것은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각급 부대기관의

89) 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555~556쪽.

90) 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1권, 557~559쪽.

91) 북조선로동당,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의 결정서」(1946.10.2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권, 국사

지휘부를 특정한 정치세력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들이 분점(分點)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민군의 지휘부는 6·25전쟁 이전까지 정파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5. 맺음말

북한의 민족보위성은 1948년 2월 7일에 설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 민족보위국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9월 9일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 6·25전쟁 직전까지 인민군을 지휘하고 관할하였다. 민족보위성은 총참모부, 문화훈련국, 포병지휘국, 해군훈련국, 전투훈련국, 조직보충국, 군사과학국 등 총 11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민족보위성의 간부는 민족보위상 최용건, 문화부상 김일(金一), 포병부상 무정, 해군부상 한일무 등 총 42명이 확인된다. 민족보위성이 설립되면서 인민군총사령부가 보위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민족보위성에는 대부분 인민군총사령부에서 활동하던 간부들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인민군의 정치사상사업과 포병·해군을 다른 병종보다 중요하게 인식해 민족보위성에서 차관급부서로 운영했다. 반면에 인민군의 공군은 육군·해군과 달리 독립병종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의 직속 사단으로 존재했고, 독자적인 병종지휘부도 없었다.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인민군의 전투교육·훈련부문은 조선의용군 출신, 인민군의 해군·포병·공병은 고려인이 책임지고 육성하였다. 민족보위성의 실권은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분점하고 있었고, 전문기술병종은 고려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인민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

편찬위원회, 1998, 37쪽. 내무성군대는 내무성이 관할하는 무력이며, 인민군은 민족보위성이 관할하는 무력이다. 대표적인 내무성군대로는 38경비여단과 철도경비여단이 있다.

출신·고려인들이 각각 전문적인 부문을 분점하고 있는 정과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족보위성은 기존에 인민군에서 활동해온 간부를 새로운 병종과 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인민군 전체에 창설경험과 운용방식을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인민군의 전체 병종·부대는 창설경험·운용방식과 정치사상적·군사적 특징을 급속하게 공유하였다. 또한 민족보위성은 간부를 자체적으로 충원한 것이 아니라 북조선로동당을 통해 충원하였다. 노동당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 각 부문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소련식 당-국가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인민군은 창설 이후 2년여 만에 노동당의 지도 아래 현대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변모하였다.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군대의 각 정치세력이 창군 이후에 권력의 갈등과 충돌보다 권한의 분담과 분점을 통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당-국가체제의 핵심은 1949년 시기에 북한의 정권기관·부문기관·협동단체·사회단체·군대의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인민군에도 소련식 당-국가체제가 도입되어 노동당에서 군대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당-국가체제는 군대의 대대 이하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대대 이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민족보위성에서 행사하였다. 또한 군대에는 노동당의 당단체가 조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당-국가체제는 군대에서 하부단위까지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6·25전쟁 이전까지 구축되지 못했으며, 전쟁 중에 민족보위성의 성격이 전환되고 인민군에 총정치국이 설치되면서 점차 변화한다.<sup>92)</sup>

92) 당-국가체제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이 정권기관·사회단체·군대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범위다. 당-국가체제는 당의 인사권이 하부단위까지 행사될수록 공고해지며, 당-정·군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북한의 당-국가체제가 1950년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국가체제에 관한 주요연구는 다음을 참고 바람. 서동만, 앞의 책, 245~249쪽;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연세대

이 글에서 민족보위성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해명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첫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민족보위성의 부서와 간부가 많다. 특히 각 부서의 체계와 간부는 거의 알 수 없다. 둘째, 민족보위성이 지휘하는 인민군 병종부대의 편제와 지휘관도 일부만 밝혀진 상태다. 이 같은 과제가 해명되었을 때, 비로소 6·25전쟁 직전 인민군의 전투서열이 정리될 수 있다. 셋째, 인민군의 정치사상부문은 항일연군의용군 출신이 담당했고 전문기술부문은 고려인이 담당했는데, 이 같은 역할분담이 인민군의 정체성에 끼친 영향이 해명되지 않았다. 넷째, 개전 이후 민족보위성과 전선사령부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문화훈련국장 김일 등 민족보위성의 간부들이 대거 전선사령부로 이동했는데, 그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제는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2018. 11. 9, 심사수정일: 2019. 4. 25, 게재확정일: 2019. 5. 7)

주제어 : 조선인민군, 북조선노동당, 당국가체제, 정치연합체제,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6·25전쟁, 최용건

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4~57쪽;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위  
음, 백학순·정성장이대근·정성임 외 지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한올아  
카데미, 2007, 32~226, 467~525쪽;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  
(1945~1960)』, 선인, 2008, 467쪽;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  
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3,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김선호, 「북한의  
당군관계 출현과 통일전선의 군대」, 『현대북한연구』 21-2,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 <참 고 문 헌>

### 1차 사료

- 『동아일보』, 1962.7.7
- 장건,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부대는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근로자』 1950년 2호, 로동신문사, 1950.1.31
-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1:7-9:30:39:46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9-1990-1998-2003-2005
- 金日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 김택영,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중앙집행기관』, 민주조선사, 1949.9
-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내성1처 제742호 : 인민군제2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 내무성, 1950.6.11,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7
- 勞動省, 『로동』 제1호, 勞動省, 1949.3.15
- 레베제프, 『레베제프 비망록』, 미간행 번역본, 1995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1950년 3호,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2.1, NARA, RG 242, SA 2009, Box 3, Item 232
- 민족보위성, 『(절대비밀) 인민군대내무성첩』, 민족보위성, 1950.6,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6
- 民族保衛省總參謀部, 『鬪爭手帖』, 民族保衛省軍事出版部, 1949.2
-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會議會議錄』, 朝鮮人民出版社, 1948
- 브스마니썩쓰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 『근로자』 제22호, 로동당출판사, 1949.11.30
- 습격기연대 문화부, 『체미날제강-국내정세』, 습격기연대, 1950.4.3,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1.5
-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간부리력서』, 민족보위성 간부처, 1949.1.8,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13



- 신영일, 『조선인민군대 이력서』,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1948.11,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2.3
-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 「몰로토프에게 보낸 보고」(1948.1), ЦА  
МО(러시아연방국방성문서보관소),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1~2
-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  
터, 2006
- 제25군 정치담당부사령관 레베제프, 「북조선인민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보  
고」(1948.2.9),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 19
- 제25군사령관 코르트코프,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관한 보고」  
(1948), ЦАМО, ф. 172, оп. 614633, д. 3, лл. 20~22.
- 조선중앙통신사 편, 『해방후 10년일지(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  
민회의상임위원회, 1950.7.20
- 砲兵參謀部, 『保衛省接受文件綴』, 民族保衛省 砲兵指揮局, 1950.6.16, NARA,  
RG 242, SA 2013, Box 1, Item 116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3, 한림대 아시아문화  
연구소, 1989

##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 김국후, 『평양의 까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2013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 림춘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박광선, 『소부대활동의 나날에』, 금성청년출판사, 1991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나남, 1996
-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 선인, 2010

-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9
- 楊昭全李輔溫, 『朝鮮義勇軍抗日戰史』, 高句麗, 1995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 육군정보국, 『(軍事極秘) 人民軍特報』, 육군본부, 1952
-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1945~1960)』, 선인, 2008
-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自由社, 1982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①-그의 삶』, 형상사, 1992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1990
-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 한국일보 편,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1991
-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8
-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 논문

- Ж. Г. Сон,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НДР(1946-1948)*, Корё Сарам, 2016.1.13.
- 기광서, 「북한 무력 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2004), <http://uci.or.kr/G704-000471.2004.28.3.004>
- 기광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대한반도 관련 ‘결정’과 북한정부의 성격 구상(1945-1948)」, 『동방학지』 144호(2008), <http://uci.or.kr/G704-001255.2008..144.008>
-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인민군의 창설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2012),  
<http://uci.or.kr/G704-SER000003282.2012.15.3.002>
-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14
- 차두현, 『북한 당·군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Abstract>

##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s National Ministry of Defense and the Composition of its Organization

Kim, Seon-ho

The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Ministry (NDM, *Minjokbowiseong*) derived from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Minjokbowikuk*)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established on February 7, 1948. The NDM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9, 1948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ver the Korean People's Army (KPA). The NDM consisted of 11 departments including the Artillery Command and the Navy Command. At that time, there were more than 42 officers, including the minister Choi, Yong-Keon (崔庸健) and the vice minister Kim, Il (金一).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rtillery, and naval forces of the KPA, assigned the related affairs to the deputy ministerial division of the NDM. On the other hand, the Air Force of the KPA, unlike the army and navy, was not an independent army, but a unit under the control of the NDM directly. The political field of the KPA was from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group, education and training from the Korean Volunteer Army group, and naval, artillery and miners from the Korean of Soviet origin. The KPA was a political coalition system in which each political party divided professional fields.

NDM assigned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to the entire unit by deploying the people in the KPA to a new unit. The forces of the KPA were fostered as armies capable of

carrying out modern warfare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sharing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NDM recruited new officers mainly through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Since 1949,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has fully adopted the Soviet-style Nomenclartula system by taking over rights of personnel management to the officers of state institutions and armed forces.

Key words : Korean People's Army, Korean Workers' Party, Nomenclartula system, Political Coalition System,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Korean War, Choi, Yong-Keon.